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영어교육/이중언어발달 관련 논문분석

An Analysis of Korean Domestic Research Trend in English
Education and Bi-lingualism of Young Children

안은숙(Ahn, Eun Suk)*, 김연하(Kim, Yeon Ha)**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8개의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학회지에 발표된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논문을 37편의 연구대상, 방법, 주제,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가설 검증을 통해 경험적으로 도달한 결론들을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아동학계에서 가장 관심 있게 다루어진 주제들은 영어교육 경험과 유아의 발달, 유아기 영어교육 실태 및 인식, 그리고 영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환경변인과 영어교육/이중언어 발달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그쳤으며, 이른바 '영어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경험적으로 증명된 결론들을 요약하면, 이중언어 아동들의 언어발달의 양상은 단일언어 아동과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단일언어 아동과 유사한 언어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외국어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배울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보다 영어와 관련된 정보를 더 잘 처리하여 결론적으로 영어학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유아기 때의 영어교육경험이 초등학생들의 영어능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관련 연구부족으로 아직 미지수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수 매체를 이용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연구가 여러 편 이루어졌고, 모두 대상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설계나 방법이 엄정한 과학적 연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연구와 이중언어발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하나 이상의 언어에 노출된 경험은 유아들의 상위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주제어: 이중언어, 영어교육, 제2언어 발달, 외국어 교육

* 제1저자: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공동저자(교신저자):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전임강사, 98mindol@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이미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전체 사립 유아교육기관의 과반수가 어떠한 형태로든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볼 때(이명조, 정선아, 이정화, 2003), 교육의 수요자인 유아들의 부모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제 2언어교육, 특히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상당부분 설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아교육현장의 변화는 학계가 단순히 조기 영어 교육이 유아들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이분법적으로 따져볼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느 방법으로 유아들을 영어에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연구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임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유아들을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두 언어를 듣고 동시에 습득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를 동시적 이중 언어(simultaneous bilingualism)라고 한다(Hoff, 2005). 예를 들면 중국어를 말하는 엄마와 한국어를 말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유아는 동시적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떤 유아들은 모국어 혹은 제 1언어 습득이 잘 진행된 후에 제 2언어를 접하는 데 이를 순차적 이중 언어(sequential bilingualism)라고 한다(Hoff, 2005). 예를 들면 한국말을 사용하는 조선족 부모에게서 태어나 6세가 될 때까지 조선말을 사용하다가 중국어 몰입교육을 하는 중국의 공립학교에 입학하면서 중국어를 배우는 유아들은 순차적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중 언어 구사자들을 두 개의 커다란 범주로 구분하였다 할지라도 이들을 둘러싼 언어 환경은 매우 이질적이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중 언어구사자들의 언어발달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처음 배우고,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며 영어를 배우는 유아들은 과연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대부분의 유아들은 앞서 말한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어를 비롯한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외국어(foreign language)로 배운다. 이중 언어 환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유아들이 접하는 영어교육 환경 역시 매우 다양하여서 그 교육효과나 영어능력 발달정도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다만, 영어교육/이중언어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의 주장은 학계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첫 번째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연령이 궁극적으로 도

달하는 유창성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Hakuta, Bialstok, & Wiely, 2003; Johnson & Newport, 1989). 미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도착연령과 문법의 정확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3-7세에 이민 온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문법구사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도착연령이 증가 할수록 특히 사춘기 이후에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일 수록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구사하는 문법의 차이가 컸다.

둘째는 언어는 배우는 시기에 따라서 뇌의 다른 부위에 표상된다는 것이다(Kim, Relkin, Lee, & Hirsch, 1997; Weber-Fox & Neville, 1996). 제 2언어를 일찍 습득하면, 모국어와 동일한 위치에 표상되며 모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제 2언어에 늦은 나이에 노출되면 모국어와 다른 뇌 부위에 표상되어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통사(문법)부분에서 심각하게 두드러지는데, 늦게 제 2언어에 노출되면 그 언어의 통사가 신경학적으로 모국어와 다르게 표상되어 통사구사의 미묘한 차이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에 노출되는 유아는 두 언어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언어 발달이 다소 지연 될 수는 있으나 결코 정상 발달 범주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De Houwer, 1995). 두 개의 언어에 노출된 유아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유아들보다 발달상 나타나는 문법적 실수를 하는 기간이 길지만 약 10세 무렵이 되면 이러한 차이는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thercole, 2002). 어휘력에 있어서도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유아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유아들이 그 언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휘는 적을 수 있으나, 한 언어에서 모르는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 아는 경우가 흔하며, 이중언어 아동의 전체 어휘크기는 단일 언어 아동의 어휘크기보다 같거나 클 수 있다(Oller & Pearson, 2002; Pearson, Fernandez, & Oller, 1993).

넷째, 자연적인 언어 학습 상황에서 제 2언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 학교상황에서 외국어로 제 2언어를 접할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아동들이 나이가 많은 아동들보다 외국어를 빠르고 쉽게 학습하는 것은 아니다(전예화, 2003). 이는 나이든 학생들은 인지적 성숙으로 인해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어를 외국어로 유아들이 배울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입력자극이 필요한지, 발음, 구문, 어휘 등의 결정적 시기가 과연 이중언어 습득과 동일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마송희, 2008).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커다란 자산을 가진 것이다.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면 다양한 문화와 정보에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직업선택이나 경제

활동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이중언어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과제이며 그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비록 위의 주장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중언어 환경은 유아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며, 사회적, 문화적 변인을 제 2언어 습득관련 연구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Hoff, 2005; Pearson, Fernandez, Lewedeg, & Oller, 1997). 또한 제 2언어노출의 결정적 시기 가설이나 도착연령 가설과 같은 이중언어 이론들을 무리하게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 적용시켜서 영어교육이 어릴수록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전예화, 2003).

앞서 밝혔듯이, 제 2언어 습득은 노출되는 맥락, 노출되는 양, 노출되기 시작한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Hoff, 2005). 이러한 변인들을 연구에서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아들이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 지, 모국어 이외의 언어습득이 유아들의 타 발달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까다로운 과제이다(Hoff, 2005). 국내외를 막론하고 두 가지 언어에 노출된 유아들에 대하여 엄정한 실험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는 극히 드문 실정이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들도 다양한 연령층과 연구방법,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영어교육 /이중언어 관련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며, 국내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연구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실험방식을 통하여 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유아교육 및 아동학 관련학회지에 발표된 37편의 영어교육/이중언어습득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 방법, 주제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주로 어떠한 변수들이 영어교육/이중언어습득 연구에 사용되었는지, 어떠한 가설들이 설정되었고 기각/입증되었는가를 살펴보아서 국내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가 경험적으로 밝힌 바는 무엇이며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순수 언어학이나 언어임상 관련 학회지를 제외한 유아/아동 관련 학회지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제 2언어습득과 관련된 이론들을 과연 아동 및 유아교육학자들이 어떻게 응용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 발달 연구와 외국어로서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이는 이중언어 관련 이론들을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 적용시키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두 분야에서 경험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교환할 정보는 무엇이며, 부족한 연구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영어교육/이중언어발달 관련 연구의 대상, 방법, 주제는 어떠한가?

둘째, 국내 영어교육/이중언어발달 관련 연구를 위해 설정된 변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영어교육/이중언어발달 관련 가설 검증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론들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유아교육 및 아동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영어교육/이중언어발달 관련 논문들이다. 수준 높은 연구들로 분석대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지정된 학술지 중 '유아교육', '아동', '보육'을 학술지 명에 포함하고 있는 학술지를 모두 검색하였다. 그 결과 10개의 학술지가 검색 되었는데 이 중 중복지체부자유아연구(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와 아동간호학회지(대한 아동간호학회)는 아동학 및 유아교육과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단계로, 선정된 8개의 학술지에서 '이중언어'와 '영어'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들을 모두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의 수는 총 37편이었다<표 1>. 영어를 검색어로 검색된 논문의 수가 30편, 이중언어로 검색된 논문수가 7 편이었다.

<표 1> 유아교육/아동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논문의 수

학회지명	발행기관	논문수	
		이중언어	영어
아동과 권리	한국아동권리학회	0	0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0	0
아동학회지	한국아동학회	7	4
열린유아교육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0	5
유아교육학논집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0	5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회	0	5
유아교육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0	4
미래유아교육학회지	미래유아교육학회	0	7
계(100%)		7(19)	30(81)

2. 자료 분석

영어교육/이중언어발달 관련 논문들의 연구대상, 방법, 주제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의 기술통계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주제, 변인, 가설들을 분류하는 작업은 연구자 이외의 1명의 아동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와 1명의 유아교육전공 박사학위 소지자가 대상논문 전체를 각자 분석한 후, 토의를 거쳐 이견을 조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는 작업은 역시 세 명의 요약을 종합하여, 수정/보완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국내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의 대상, 방법, 주제는 어떠한가?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유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문헌고찰을 한 연구가 9편이었다. 이중언어아동을 주요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이었으며, 교사/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편, 교육프로그램/교육기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 3편과 2편이었다.

<표 2> 연구의 대상

주요 연구대상	세부 내용(편수)	편수(%)
문헌고찰		9(24)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사+영어교육프로그램(1),유아교육기관(2)	3(8)
초등학교	초등학생+원어민교사(1), 초등학생(1)	2 (7)
유아	유아(8), 유아+어머니(1), 유아+부모+교사(1), 유아+교사(2)	12(32)
교사/부모	교사+부모(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2), 교사(1)	4(11)
이중언어아동	한국어아동+영어아동 +한국어 /영어이중언어아동(1), 조선족+한국아동 (2), 조선족 아동 (3), 한국어아동+ 한국어/영어이중언어 아동(1)	7(19)
계		37(100)

자료조사 방법 및 연구의 분류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법을 사용한 연구가 1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서 연구법이 9편, 질문지만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가 6편이었다. 연구의 분류는 조복희(2002)를 참조로 하여 현상의 존재여부를 탐색하거나 변수 및 연구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면 '탐색연구'로, 특정현상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연구는 '기술연구'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나 실험적 통제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설명(가설검증)연구'로 분류하였다. 총 37편중에서 설명(가설검증)연구가 2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탐색연구가 9편, 기술연구가 8편이었다.

<표 3> 자료조사 방법 및 연구의 분류

자료 조사 방법	편수(%)	연구의 분류	편수(%)
질문지	6(16)	탐색연구	9(24)
질문지+면접법	2(5)	기술연구	8(21)
질문지+실험법	2(5)	설명(가설검증연구)	20(54)
질문지+ 면접법+실험법	1(3)		
실험법	11(30)		
관찰법	7(19)		
문서연구법	9(24)		
계	37(100)	계	37(100)

연구의 주제는 연구의 제목을 중심으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표 4). 첫 번째 주제는 이중언어와 관련된 것으로 총 7편이 해당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영어교육경험과 유아의 여러 가지 발달적 능력과의 관계를 탐구한 것이었으며 총 7편이었다. 세 번째로는 영어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즉 특정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이나 교수방법이 얼마나 유아의 영어 학습에 효과적인지를 밝히는 연구였으며 총 8편이 해당하였다. 네 번째로는 유아교육기관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가 8편, 다섯 번째로는 유아영어교육의 타당성 및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가 6편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연구는 영어로 편찬된 한국 전래동화를 분석한 연구로 1편이 있었다.

<표 4> 연구의 주제

연구주제	주요내용	편수(%)
이중언어	이중언어아동의 발달/이중언어아동과 단일언어 아동의 비교	7(19)
영어교육경험과 아동발달	영어교육 경험관련변인과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 연구	7(19)
영어교육 프로그램 효과	특정한 프로그램이 유아의 영어학습에 미치는 효과 연구	8(21)
영어교육 실태 및 인식	유아영어교육 또는 유아영어교사 양성의 실태, 유아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인식	8(21)
유아영어교육의 타당성 및 연구의 동향	유아기 영어교육의 타당성 고찰 및 연구의 동향	6(16)
기타	유아용 도서의 분석	1(3)
계		37(100)

2. 국내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를 위해 설정된 변인들은 무엇인가?

분석 대상 논문들 중 기술연구나 가설검증연구로 분류된 논문들의 연구문제에서 주요 변인들을 추출하여 분류해 보았다(표 5). 변인들은 크게 유아들의 일반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 유아들의 영어/이중언어 능력관련 변인, 영어교육/이중언어 경험관련 변인, 영어 프로그램관련 변인, 가정환경 변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유아의 일반적 능력관련 변인들은 유아의 언어외적인 발달능력(지능, 창의성, 보존개념 등), 모국어 능력(우리말 어휘력, 한글 읽기능력 등), 그리고 상위언어능력 등이었다. 영어/이중언어 능력관련 변인들은 영어유창성, 영어흥미, 영어학습태도, 이중언어 구사여부 등이었다. 영어교육/이중언어 경험관련 변인들은 영어교육의 시작시기와 영어교육의 유형 등이 포함된다. 영어 프로그램관련 변인은 특정한 영어교육 프로그램내용이나 교육기관의 종류가, 가정환경 변인은 부모의 학력, 소득, 연령, 영어교육 관심도가 있었다.

<표 5> 영어교육/이중언어발달 관련 연구들에 나타난 변인들

유아의 일반적 능력 관련 변인	지능, 성별, 연령, 보존개념 발달, 단기기억, 실행주 의능력, 상위언어능력, 창의적 사고력, 모국어 능 력, 모국어 어휘력, 우리말 어휘력, 한국어 능력 분석/통제능력, 자소음소 대응능력, 한글글자 읽 기, 주격/목적격조사 발달과정, 복문발달, 조사습 득, 격조사 발달과정에서의 실수,
유아의 영어/이중언어 능력 관련 변인	영어학습 태도/능력, 영어 이해력, 영어에 대한 흥미, 초등생의 영어 유창성, 영어 어휘력, 영어 학 습흥미도, 유아들이 회상한 영어어휘, 영어어휘습 득, 영어이야기 회상, 영어 능력, 중국어 능력, 초 등학생의 영어관심도, 이중언어구사 여부
외국어/이중언어 경험 관련 변인	유아의 영어 학습경험, 유아의 영어교육경험정도과 유형(학원수강, 동화읽기), 조기 영어교육 경험 영어교육 시작시기, 영어교육의 지속성, 초등학교 1학년의 유아기 영어경험,
영어 프로그램 관련 변인	역할극/게임 중심의 의사소통 영어학습법, 이야기 노래를 활용한 영어교육활동, 노래 /그림책을 활용 한 영어교육활동, 유아교실에서 영어영역활용, 다 문화 접근의 유아영어교육활동, 영어교육기관의 종 류,
가정환경변인	어머니의 나이,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소득, 영어 교육관심도

* 변인들은 연구문제에서 추출함. 여러 연구에서 동일한 변수명이 추출되었을 경우 한번만 기재함

3.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가설 검증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론들은 무엇인가?

분석대상 논문 중 기술연구와 설명(가설검증)연구로 분류된 논문들의 연구문제들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종합적 가설을 추출 하였다. 각 가설에 따른 주 요 결론들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언어 아동들과 단일언어 아동들의 언어적 능력이나 인지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중언어 아동들은 단일언어 아동들에 비하여 주의통제과제를 더 잘 수행하고, 경계주의와 실행주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이해련, 이귀옥, 2006). 이중언어 아동들은 처해있는 독특한 상황에 따라 목적 적 조사나 주격조사 습득과 같은 언어발달 양상이 단일언어 아동과는 약간 다르지

만(이귀옥, 김형재, 이혜련, 2006; 이하원, 최경숙, 2008), 일정한 연령이 되면 단일언어 아동과 비슷한 언어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이귀옥, 이혜련, 2008; 윤혜경, 박혜원, 2005; 황혜신, 황혜정, 2000). 즉, 이중언어가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언어 발달을 저해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이중언어 아동이 단일언어 아동에 비하여 주의통제과제 등을 더 잘 수행하였다.

둘째, 영어교육경험이 유아들의 영어능력, 지능/창의성, 또는 상위인지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우선 유아기 영어교육경험이 초등학생들의 영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편의 연구는 접근방식이나 측정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결론의 단순비교는 주의를 요한다. 신동주(2007)는 유아기 영어교육은 초등학생들의 영어시간에 자신감이나 흥미 등 정의적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거나, 유아기 영어경험 유무에 따른 영어능력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현아, 최미현, 좌승화와 천희영(2003)은 취학 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영어 유창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영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더 유창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아들의 영어교육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우남희(2007)는 유아기 영어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언어창의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우남희와 김현신(2004)은 연령이 높은 7세 유아가 4세 유아보다 영어학습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 즉 영어학습의 효과는 유아의 보존개념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효과가 높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영어교육경험과 유아의 상위언어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모두 유아의 상위언어능력과 영어교육경험 간의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마송희, 2003; 마송희, 2007; 한유미, 조복희, 1999).

셋째, 유아들의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어떠한가?

특정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총 5 편이었으며,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마송희(2004), 마송희와 오채선(2002)은 노래와 그림동화책을 활용한 영어교육활동이 유아들의 영어 어휘력 향상이나 영어이야기 회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구찬주와 이명조(2002)는 자유선택활동 시 영어영역활용이 유아의 영어 이해력(영어단어 익히기, 영어단어 듣기, 영어단어 말하기)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최지영(2001)은 역할극과 게임중심의 의사소통 영어학습방법으로 학습한 유아집단이 노래와 찬트(chant) 중심으로 학습한 집단보다 영어 학습흥미와 영어의사소통 능력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박찬

옥과 신현경(2008)은 다문화 접근의 유아영어교육활동을 경험한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모국어와 영어 능력 검사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외국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8년 동안 유아교육/아동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총 37편의 영어교육/이중언어관련 논문들의 연구주제, 대상, 연구방법 등을 양적으로 분석하여 그 대략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떠한 변수들이 주로 연구되었는지, 어떠한 가설들이 설정되었고 도출된 결론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의 대상, 방법, 주제는 어떠한가?

우선, 분석대상논문을 검색할 때, 영어를 검색어로 검색된 논문의 수가 총 37편 중 30편, 이중언어로 검색된 논문 수가 7편이었다. 특히 조선족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연구가 6편 있었는데, 1990년대를 전후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조선족의 어린이들이 이중언어 연구의 훌륭한 대상으로서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대상을 살펴보았을 때, 유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이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문헌고찰을 한 경우가 9편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자료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만 이용한 연구가 6편, 질문지법과 기타 방법을 병행한 연구가 5편 있었다. 실험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도 11편이 이루어져서, 비교적 수준 높고 통제가 잘 이루어진 자료조사 방법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아도 설명(가설 검증)연구가 20편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이제 유아교육/아동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가 현상의 탐색이나 기술을 넘어서서, 변인간의 적극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주제는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유아기 영어교육 실태 및 인식(8편), 그리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8편), 영어교육경험과 아동의 발달(7편)에 관한 연구가 과반수여서, 유아교육/아동학자들의 관심은 단연 일반유아교육기관에서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유아들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국내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를 위해 설정된 변인들은 무엇인가?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들에 나타난 변인들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유아의 지능, 창의성, 보존개념, 모국어 능력, 상위언어개념을 포함한 유아의 일반적 발달능력관련 변인들이 있었으며, 영어 유창성, 어휘력, 이해력 등과 같은 유아의 영어/이중언어 능력관련 변인이 있었다. 또한 영어교육시작시기 및 지속성과 같은 영어교육/이중언어 경험관련 변인이 있었고, 특정 영어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할 때 주로 사용된 영어 프로그램관련 변인이 있었다. 이상의 네 가지 변인군들은 영어교육/이중언어를 연구할 때 주로 탐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변인들이었다. 그러나 가정환경 관련변인을 다룬 연구는 단 1편(서현아 등, 2003)에 불과했다. 유아의 영어교육이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가정의 선택과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정환경변인이 유아기 영어교육 및 영어능력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유사유아교육기관으로 많은 수의 유아들이 취학전에 교육을 받고 있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셋째,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가설 검증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론들은 무엇인가? 분석대상 논문들 중 기술연구나 설명(가설검증)연구들의 연구문제를 종합하여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였다. 우선 이중언어 아동들의 언어발달의 양상은 단일언어 아동과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단일언어 아동과 유사한 언어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 5-6세 정도를 단일언어 아동의 언어구사능력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지는 시기로 보고하고 있었다 (이귀옥 등, 2003; 윤혜경, 박혜원, 2005; 황혜신, 황혜정,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에 노출되는 유아들이 두 언어의 충돌로 인하여 언어발달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결코 정상 발달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De Houwer, 1995)과 일치한다. 또한 특정한 인지적 과제(예: 주의통제과제)를 수행할 때 이중언어 아동이 단일언어 아동보다 더 우수한 수행을 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귀옥 등 2003; 이해련, 이귀옥, 2007). 이중언어 아동들은 두 가지 언어를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 자신의 인지용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통제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ialystock, 1999; Hoff, 2005).

유아기 때의 영어교육경험이 초등학생들의 영어능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지수이다. 서현아 등(2003)이 취학전 영어교육 경험과 초등학교입학 이후의 영어교육 지속성이 초등학생의 영어유창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신동주(2007)는 유아기 영어교육경험은 영어학습 흥미나 자신감 같은 정의적 측면에서만 효과가 있고, 유아기 영어교육경험으로 인한 영어실력 차이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주(2007)의 연구는 원어민 교사를 면접하고, 영어 수업시간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아들의 영어 유창성을 직접 측정한 서현아 등 (2003)의 연구와 비교가 어렵다. 또한 서현아 등(2003)의 연구결과가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외국어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배울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영어와 관련된 정보를 더 잘 처리하여 결론적으로 영어학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우남희, 김현신, 2004). 이러한 결과는 외국어를 학교 환경에서 배울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유리하다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한다(전예화, 2003). 또한 영어교육을 많이 받은 유아들이 언어창의성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다는 주장도 있어나(우남희, 2007) 전반적으로 외국어 노출경험은 유아들의 상위언어 인식, 즉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마송희, 2007; 한유미, 조복희, 1999).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언어를 다루며 사는 사람들은 상위언어 인식이 뛰어나다는 기존의 주장(Bialystok, 1991)과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모두 대상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찬주, 이명조, 2002; 마송희, 오채선, 2002; 최지영, 2001).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노래, 동화책, 역할극, 게임, 영어영역활용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수 매체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사전사후 검사법을 사용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엄격한 구분이 없었으며, 연구대상 유아들의 수가 50명 전후로 비교적 작았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단기효과만을 측정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결론들을 바탕으로 유아교육현장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언어 아동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이중언어 아동의 발달에 대한 주장들과 대체적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중언어 아동들은 단일언어 아동들과 다른 양상과 속도로 언어발달을 하지만 정상발달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사회에서 이중언어 아동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아교육현장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이중언어 아동이 있을 수 있는데, 부모를 따라 해외에서 살다가 귀국한 경우와 결혼이민자를 부모로 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개인적 자산이며, 직업선택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정보의 접근에 용이하다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의 실태를 보고한 내용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은 미숙한 한국어능력으로 인하여

또래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학업부진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영달, 2006).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다루는 것은 아동들에게 축복임과 동시에 커다란 도전이다. 기능적인 이중언어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현재 보다 포괄적 의미인 ELL[English Language Learners]라는 용어로 공식 대체됨)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사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두 가지 언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semi-lingual)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은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적응과 언어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수 매체를 이용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아기 영어교육이 부모의 개인적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을 적절히 제공한다면,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유아영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과학적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분석대상논문들 모두가 대상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영어능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연구설계나 방법이 '엄정한 과학적인 연구기준'(educational practice supported by rigorous evidence)에 벗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무선표집을 통해 외생변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적절히 구성하여, 적어도 두 기관이상에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얻은 프로그램만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영어교육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연구자들은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본인들이 '효과입증을 목적으로 한 연구'(advocacy-driven study)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은 실시하려는 프로그램이 과연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효과가 뒷받침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영어교육/이중언어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 문화적 특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유아교육/아동학계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다. 일부 영어유치원이 유아의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으나(조선일보, 2008; 한겨레 신문, 2004) 아직 이에 대한 학문적 탐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영어유치원의 교육과정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영어유치

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영어입력자극의 양은 얼마나 되며, 과연 어느 정도 장기적 효과를 갖는지, 영어유치원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교육 및 아동학자들은 유아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배우도록 보조해야 할 사회적 소명이 있는 집단이므로, 유아용 영어 학원 프로그램과 유아교육기관 대신에 유아용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학계의 과제라고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이중언어에서 밝혀진 이론들을 외국어로서 영어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두 분야에서 교환할 연구 결과는 무엇이며, 부족한 연구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과 이중언어 발달의 두 연구 영역 간 이론 교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중언어 연구에서 밝혀진 제 2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도 적용이 되는 지,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연구에서 주장하는 연령에 따른 언어관련 정보처리 능력의 차이가 이중언어 습득에도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지 등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연구와 이중언어 발달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여러 가지 언어에 노출되는 경험이 아동의 상위인지능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이귀옥 등, 2003; 한유미, 조복희, 1999). 이중언어의 제 2 언어노출의 결정적 시기 가설과 도착연령 가설을 근거로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이중언어 이론들이 우리나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로서 영어교육에서도 일반화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논문대상으로 수준 있는 연구를 선별하기 위해서 등재학회지로 검색영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등재후보학회지와 유아교육/아동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에서도 수준 높은 연구 설계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보고한 영어교육/이중언어 관련 연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분석대상논문

- 구찬주, 이명조 (2002). 영어교사 수업 후 자유선택 활동에서의 영어영역 활용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1), 29-50.
- 김금희 (1999). 영어로 편찬된 한국전래동화에 나타난 어린이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3(2), 175-195.
- 김순환 (2008).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현황과 담당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327-355.
- 김순환, 이기숙 (2008). 유치원 영어수업에서 영어담당교사가 사용하는 교수전략과 유아반응. 유아교육연구, 28(5), 247-271.
- 마송희 (2008). 유아교육기관 영어교육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실천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13(4), 221-245.
- 마송희 (1997). 유치원 영어교육의 타당성 및 교수방법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2), 175-192.
- 마송희 (2003). 유아의 상위언어능력과 모국어 및 외국어 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8(3), 253-272.
- 마송희 (2003). 유아의 영어교육경험, 상위언어능력, 모국어 및 영어 어휘력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2), 267-289.
- 마송희 (2004). 이야기 노래(story songs)를 활용한 영어교육 활동과 유아의 영어 이야기회상. 유아교육학논집, 8(2), 57-75.
- 마송희 (2007). 유아 영어교육 연구동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0(5), 185-208.
- 마송희, 오채선 (2002). 노래와 그림동화책을 활용한 영어교육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이야기회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30, 179-206.
- 박찬옥, 신현경 (2008). 다문화 접근의 유아영어교육활동이 유아의 모국어와 영어능력 발달 및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55, 69-95.
- 박화윤, 안라리, 하양승, (1997).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7(2), 183-206.
- 서현아, 최미현, 좌승화, 천희영 (2003). 취학전·후 영어교육 환경과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 유창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4), 299-319.
- 송승민, (2005). EFL환경과 ESL환경에서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유형 분석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387-412.
- 신동주, (2007). 유아의 영어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

- 육학논집, 11(2), 349-374.
- 양옥승, 김진영, 김현희, 강영실 (2001). 한국 사립유치원 영어교육실태. 아동학회지, 22(4), 299-313.
- 오영희 (1997). 유아교육기관에서 음률 및 문학적 접근을 통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일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9, 197-211.
- 오영희, 엄정애 (1997). 음률 및 문학적 활동을 통한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 153-172.
- 우남희 (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4), 453-474.
- 우남희, 김현신 (2004). 아동의 지능, 보존개념의 발달과 영어학습과의 관계분석. 아동학회지, 25(1), 1-12.
- 윤혜경, 박혜원 (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글 자소-음소 대응능력의 발달과 글자 읽기와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6(4), 145-155.
- 이경희, 전예자 (1996).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 203-230.
- 이귀옥, 김형재, 이해련 (2006). 중국조선족 아동들의 한국어 문법 기능 습득. 아동학회지, 27(2), 1-14.
- 이귀옥, 이해련 (2008). 한국어 중국어 이중 언어아동의 한국어 발달: 복문발달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5), 1-12.
- 이귀옥, 전효정, 박혜원 (2003). 3-5세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제 이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6), 1-14.
- 이대균, 백경순, 정명자 (2006). 유아영어교육의 연구 동향 및 내용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0(2), 95-120.
- 이명조 (1995). 유치원에서의 영어조기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 107-126.
- 이명조 (2005). 조기영어교육 효율성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3), 107-127.
- 이명조, 정선아, 이정화 (2003). 한국 유아의 조기교육.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87, 서울: 집문당.
- 이영환, 한영숙, 정남숙 (2001). 유아교육기관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 연구-관찰을 통한 현장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25, 21-56.
- 이하원, 최경숙 (2008). 혼자놀이에서 5-6세 한국어-영어 동시습득 이중언어 아동의 한국어 조사습득분석. 아동학회지, 29(6), 147-161.

- 이혜련, 이귀옥 (2006). 이중 언어 경험과 선택적 주의능력의 관계. 아동학회지, 27(4), 55-64.
- 전예화 (2003). 영어교육 어릴수록 효과적인가? 유아교육연구, 23(3), 285-305.
- 최지영 (2001). 역할극과 게임 중심의 의사소통 영어 학습방법이 유아의 학습 흥미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6(2), 41-68.
- 최혜정, 조성자 (2007). 유아 영어교사의 자질과 양성 교과목에 관한 실태연구. 아동학회지, 28(6), 17-36.
- 한유미, 조복희 (1999). 유아의 모국어 능력, 외국어 경험정도와 상위언어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9-216.
- 황혜신, 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참 고 문 헌

- 영어유치원의 문제점 (2004. 2. 22). 한겨레 신문. 자료인출 2009년 5월 1일, 출처 <http://www.hani.co.kr/section-005006001/2004/02/005006001200402221210163.html>
- 소극적인 우리아이 영어유치원 보낼까 말까?(2008, 11. 09.). 조선일보. 자료인출 2009년 5월 1일, 출처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09/2008110900262.html
- 조복희 (2002). 생활과학연구법. 서울: 교문사.
- 조영달 (2006).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De Houwer, A. (1995). Bilingual language acquisition. pp. 219-250. in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 (ed) P. Fletcher and B. MacWhinney. Oxford: Blackwell.
- Gathercole, V. C. M., Sebastian, E., & Soto, P. (2002). The emergence of linguistic Person in Spanish-speaking children. *Language Learning*, 52(4), 679-722.
- Hakuta, K., Bialystok, E. & Willey, E. (2003). Critical evidence: A test of the critical-period hypothesis for second-language acquisition. *Psychological Science*, 14, 31-38.
- Hoff, E. (2005). *Language Development Third Edition*. Thomson Learning.
- Johnson, J., & Newport, E. (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21, 60-99.
- Kim, H. S., Relkin, N. R., Lee, K. M., & Hirsch, J. (1997). Distinct cortical areas associated with native and second languages. *Nature*, 388, 171-174.
- Oller, D. K., & Pearson, B. Z. (2002). Assessing the effects of bilingual: A background. in *Language and Literacy in Bilingual Children*, (Ed) D. K. Oller.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Pearson, B. Z., Fernandez, S. C., Lewedeg, V., & Oller, D. K. (1997). The relation of input factors to lexical learning by bilingual infants. *Applied Psycholinguistics*, 18, 41-58.

Pearson, B. Z., Fernandez, S. C., & Oller, D. K. (1993). Lexical development in bilingual infants and toddlers: Comparison to monolingual norms. *Language Learning*, 43, 93-120.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Identify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ractices supported by rigorous evidence: A user friendly guide.

<http://www.ed.gov/rschstat/research/pubs/rigoroussevid/rigoroussevid.pdf>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37 studies about bi-linguism and English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published in 8 academic journ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or child development fields. Research topics, participants, methods, and variables in the studies were categorized and descriptively analyzed. The research findings which had been statistically investigated were also summarized.

The most frequently studied research topics were children's development and English education program exposure, actual conditions of English education in preschool settings and effectiveness of specific English programs for preschool children. However, children's home characteristics were seldom included as research variables and no research investigated so called English preschools.

Several studies reported that bi-lingual children may have different language development paths from mono-lingual children but they eventually have comparable language abilities to mono-lingual children. Also some studies reported that, when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school settings, older children can handle more information regarding English than younger children, resulting in better outcomes of older children. Exposure to two languages in early childhood seems to contribute to young children's meta linguistic awareness but the long term effect of English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should be further studied. Several English education programs for preschool settings were developed and the effectiveness were investigated. Even though most of them reported that their programs were effective to children's English ability or interests, the results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because their research designs and methods were not rigorous.

Key Words:: Bi-lingual, English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Second language Development, Foreign Language Educatio

2009. 04. 30. 투고 : 2009. 6. 18. 수정원고접수 : 2009. 6. 24. 최종게재결정